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주민수, 한승호

다음주 독서: 최미진, 이유진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우상인 사비나

이번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최미라 베아트리체

다음주 미사해설: 최미라 베아트리체,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올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학부생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11월 18일, 12월 2, 16, 30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시 45분 성당친교실 (11월 26일, 12월 10, 23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택 (12월 9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후

대학원 구역

11월 19일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대림은 구세주의 오심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지요?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성대하고 감동적인 성탄 축제인지요? 교회가 해마다 대림 시기를 마련해 놓고 끊임없이 기다림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다림’은 다른 말로 ‘그리움’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림자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움은 행복했던 추억의 시간도, 떠나보낸 아름다운 연인도, 미래에 다가올 멋진 인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의 초상’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리움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상’에 달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 강생의 사건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서 보여 주신 사건입니다. 그 얼굴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모상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리움은 ‘하나님을 닮은 나’, ‘때 묻지 않은 본래의 순결하고 맑은 나’, ‘온전하고 충만한 나’를 향한 그리움입니다. 해마다 대림 시기를 보내는 까닭은 우리의 진정한 기다림의 목적지를 깨닫고 그 본래의 순수한 나, 완전한 나를 찾아 길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385

합 계: \$ 385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성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Facebook 그룹: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2011년 11월 26일

[대림 제 1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63, 16-17, 19; 64, 2-7

<제 2 독서> 코린토 1 서, 1, 3-9

화답송

-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구원하소서.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이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복음, 13, 33-3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94

봉헌: 211

성체: 178

파견: 93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그분처럼 되고 헨리 나웬과 함께 읽는 '그리스도인의 길'

대림절을 목전에 두고 하루 하루 읽으며 묵상할만한 글을 연재하려고 합니다. 1998년에 로버트 에이 죠나스가 헨리 나웬의 글을 편집한 <그리스도인의 길>(Orbis, 1998)인데, 2004년에 <참사람되어>에서 번역한 것을 한현 선생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하루 하루 '하느님 안에 잠겨'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편집자
- 카톨릭뉴스 <지금여기에>에서 가져옴.

대사제의 기도에서, 예수는 자신의 의도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이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요한 17,21-26)

이 기도의 말은 예수의 사명의 본질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처럼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처럼 되었다.
그분은 하느님과의 동질성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비웠으며 우리가 그분처럼 되고
그분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근원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이 말은 예수가 영적인 삶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을 잘 요약한다.
그것은 사랑의 성령에 의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이 똑같은 상태로 남아 있는 삶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이나 일 자리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거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로부터 물러서거나,
문학 예술에 대한 관심을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
혹은 엄격한 금욕주의나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영적인 삶에서 새로운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수많은 것들, 사람들, 사건들을 끝없는 걱정거리로 겪지 않고,
하느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현존을 알리는
풍요롭고 다양한 통로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헨리 나웬,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며>에서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추수 감사절 식사가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박장에서 사과 한 박스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 집에 남는 진공 청소기 있으면 하나 도네이션해 주세요.



헨리 나웬 (Henri Jozef Machiel Nouwen, 1932 – 1996)

기도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총명한 빛으로 걸어 들어가
"저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라고 간단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헨리는 예수와 복음이 갖고 있는 변화의 힘을 완전히 신뢰했다. 그는 예수가 하느님을 신비와 무조건의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열정을 다해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그 사실에 바쳤다. 그러나 또한 헨리의 사도직분은 예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야기라는 확신에 근거하였다. 예수의 삶 안에서 우리는 2천년 전에 살았던 한 거룩한 사람에 관한 사실들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다운 자아에 관한 비밀도 엿볼 수 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의 참다운 정체성에 대한 실마리를 성서에서 찾아볼 때에, 헨리는 자주 어떤 핵심적인 구절들로 돌아가곤 했다. 헨리의 저술에서 발췌하여 구성한 이 책의 글들은 루가복음의 다음 구절에 근거하고 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들어가 밤을 새우시며 하느님께 기도 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 중에서 열 둘을 뽑아 사도로 삼으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더러운 악령에 걸려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예수에게서 기적의 힘이 나와 누구든지 다 낫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하였다"(루가 6,12-19).

헨리가 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예수와 함께 변하지 않는 차원들 즉, 침묵, 고독, 기도로부터 공동체로 사명으로 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단계들은 연대순으로 진행되지만, 하느님 안의 우리 존재에 동시에 일어나는 차원들로서 서로 겹쳐지기도 한다. 마음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끝없는 갈망, 외로운 염원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고요한 장소로 간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는 축복을 받는다. 하느님은 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고독과 침묵의 기도 안에서 이 축복을 받으며, 우리는 산 아래로 다시 인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받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고통받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헨리의 저작들 중에서 뽑은 글들로 구성된 이 책은 바로 루가의 위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 즉 고독 속의 회심으로부터 공동체 형성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속한 작은 공동체들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기쁜 소식을 가져가는 사명에 나아가는 것이다. (로버트 에이 죠나스)